



생필품의 수급은 이렇게 한다

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의 유통 질서 통제

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지정하여 유통 질서를 통제한다

- 물가 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점매석, 판매 기피, 사재기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한다.
-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고 가격을 지정하며 수급을 조절한다.

생활필수품(11개 품목)
 쌀, 보리쌀, 콩, 밀가루, 라면, 소금, 유류, 부탄캔, 건전지, 양초, 세탁비누



주요 생활필수품의 배급제 실시

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등 유통 질서를 통제하기 곤란할 때에는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배급제를 실시한다.

주식인 쌀은 권역별로 충분히 비축되어 있고, 가공품은 업체를 동원하여 생산한다.

배급제 실시 품목(7개 품목)
 쌀, 보리쌀, 유류(난방/취사용), 부탄캔(수도권), 소금, 세탁비누, 라면(수도권)

- 유사시 생활필수품을 책임지고 공급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매점매석, 판매 기피, 사재기 등은 불필요하다. 이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유통 질서를 문란시켜 적을 이롭게 하고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다.
- 각 가정에서는 평소에 양곡, 연료 같은 생활필수품을 15일분 내지 1개월분 정도를 언제나 비축해두자.